

실제상황



오 세 익

국내 여론조사기관 종사자들은 남다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객관적이고도 체계화된 조사기법(통상 오차범위 3%이내)으로 여론조사를 했으나 결과가 빗나가는 경우가 적지않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관련 여론조사는 실제와 너무 동떨어진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에 먹칠을 한 사례도 있다.

이와같은 결과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남에게 쉽게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국민들의 마음이 짐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친한 사이에도 대화 도중에 '진짜냐?' '사실이나?' 하는 쓸데없는 확인을 자주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다. 우리 주변에 믿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둘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지 않고서는 황당한 일을 당하거나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사실 올림픽과 월드컵축구대회를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치뤘던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그리 많지 않다.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지 않은가?

어깨를 으쓱이고 긍지를 가질만한 일이다. 그런데 나라사정은 이 수준에 못미치고 있는 듯해서 안타깝다. 곳곳에서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으며 서로간에 불신의 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큰 일이다. 동방예의지국을 '트레이드 마크'로 삼아 온 우리인데, 이제는 어른을 공경하고 잘 모시지는 못할 지언정 우습게(?) 보고 멸시하는 서글픈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쉽게 말해서 바르게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요즘 인쇄인들은 단순히 '인쇄인'으로 불리우기 보다는 '인쇄문화인'으로 자리매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인쇄인들은 문화인으로서 떳떳한 생활을 해왔는지, 부끄러운 일은 없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고쳐야 할 것은 바로잡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역사의 관점이나 선현들의 가르침을 보더라도 인생은 그리 길지 않다. 헛것을 위해 인생을 허비하지 않나 점검해 봐야겠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실제상황 아래에서 올바르게 대응하고 중심을 세워 살아가는 방식이 그 어느때 보다 절실한 실정이라고 하겠다.

인쇄업을 경영하려면 머리도 더 많이 써야 하겠고 복잡한 일도 더 많아 질 것 같다.

인쇄문화인 화이팅! <편집주간>